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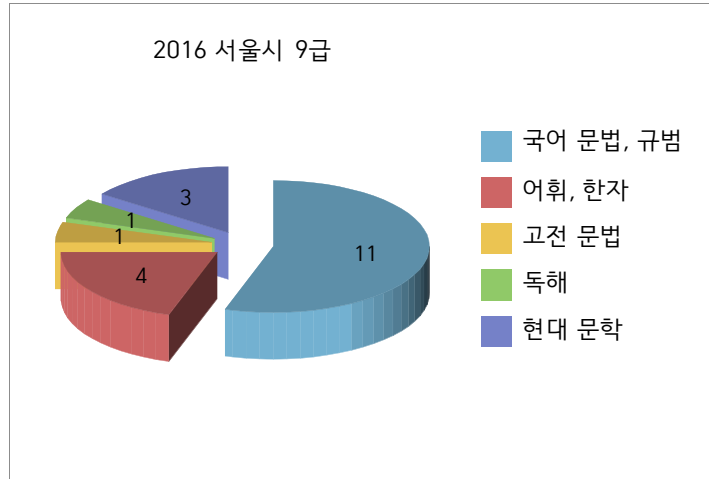
2016. 6. 25. 시행 서울시 9급 국어

문제와 해설: 공단기 이선재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6월 18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서울시 9급



지식형 16문항	국어 문법 국어 규범 (11)	총론 (1): 국어의 어휘 음운론 (1): 음운의 변동 형태론 (2): 품사론 / 단어의 형성 통사론 (2): 사동문 / 문장의 종류 의미론 (1): 의미의 변별 표준 발음법 (1) 띄어쓰기 (1) 표준어 (1) 외래어 표기 (1)
	어휘 · 한자 (4)	고유어 (1) 한자 (2): 올바른 한자의 표기 한자 성어 (1)
	고전 문법 (1)	훈미정음 제자 원리 (1)
수능형 (지문 분석형) 4문항	독해 (1)	글의 사실적 이해 (1)
	현대 문학 (3)	현대 소설 (1): 이태준, <달밤> 현대문학사 (2)

국어 문법, 현대 문학사 다수 출제

지식형 강세, 서울시 시험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2016년도 서울시 시험은 국어 문법과 규범, 어휘와 한자 등에서 총 16문항이 출제되었다. 전통적으로 서울시 시험이 지식형이 강세였다 하더라도, 올해 시험은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국어 문법(현대문법과 고전문법) 및 국어 규범에서 총 1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문항의 수도 많았지만 총론부터 의미론까지, 문법의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오랜만에 국어 어휘의 종류(총론) 문제가 나와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며, 통사론 문제 역시 문법 이론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등은 익숙한 유형이 출제되었고, 고전 문법 역시 늘 학습했던 훈민정음 창제원리가 나와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본다. 국어 규범 역시 표준어, 띄어쓰기, 표준 발음 등 공무원 국어 시험의 기본 유형이 출제되었는데, 이해 위주의 학습 다음에 꼼꼼한 암기가 뒤따라야 하는 영역이기에 성실한 학생들이라면 무난히 풀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휘와 한자는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과 난도 및 출제 비율이 비슷하였다. 특이한 점은 독해 영역이 단 1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4년 서울시 시험 역시 1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지식형 위주로 출제를 하는 서울시 시험의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마음을 졸였던 현대 문학사 문제가 올해 2문항이나 출제된 것도 이번 시험의 큰 특징이다. 현대 문학사는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풀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의 고유한 출제 영역임을 누차 강조하고 시험 직전에 문학사 특강을 열었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한 학생은 무난하게 풀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매 수업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 시험장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20문항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 해에 최소 2-3회 이상의 시험을 치르기에, 하나의 시험을 보고 선불리 출제 경향을 예단하지 말라, 깊이 있고 성실하게 학습 하라고 조언하곤 한다. 이번 서울시 시험은 기본 이론을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다.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끝난 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노력한 만큼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남은 7급 시험이나 내년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든 시험이 서울시와 같이 지식형 위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결국 지식의 습득과 지문 분석 능력의 향상, 두 가지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떤 시험이든 큰 편차 없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눈을 맞으면서도 곳곳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갈매나무처럼,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현실을 견디는 모든 수험생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끄나풀 - 새벽녘 - 샴쟁이 - 떨어먹다
- ② 뜰계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닭다
-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강아지
- ④ 보조개 - 솟양 - 광우리 - 강남콩

정답: ③

*선재국어 1권 289쪽부터, 서울시 S0S 134쪽부터

해설: ‘치켜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수강아지’는 모두 표준어이다. ‘삭월세(×), 설겅이(×), 솟강아지(×)’는 비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① 샴쟁이(×) → 샬쟁이(○), 떨어먹다(×) → 털어먹다(○). ‘끄나풀(○), 새벽녘(○)’은 표준어이다.

② 세째(×) → 셋째(○), 애닭다(×) → 애달프다(○): ‘뜰계질(○: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빨래할 옷의 솔기를 뜰어내는 일), 수평아리(○)’는 표준어이다.

④ 광우리(×) → 광주리(○), 강남콩(×) → 강남콩(○): ‘보조개(○), 솟양(○)’은 표준어이다.

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벅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시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이태준, <달밤>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 ‘포도’는 장사 밀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 ①

*나침판 모의고사1 10회 12번, 지문 및 선택지 일치

해설: ㉠은 돈을 받고 기뻐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황수건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을 통해 황수건이 순

박하고 천진한 성격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㉞에 참외 장사가 실패할 것을 예측할 만한 단서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㉞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㉞ 요약적 제시란 화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㉞은 서술자 ‘나’가 황수건에게 일어난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㉞ ㉞에서 ‘순정의 열매’는 황수건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도둑질까지 해서 가져온 포도를 비유한 것이다. 그 것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는 말을 통해 ‘나’가 수건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태준, <달밤>

1. 갈래: 단편 소설
2. 배경: 일제 강점기, 서울 성북동
3.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4. 제목이자 결말에 나오는 ‘달밤’의 역할: 결말부에서 거듭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황수건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달밤에 노래를 부르며 가는 장면은 애상적 정조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수건에 대한 ‘나’의 따뜻한 시선과 연민의 정서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5. 주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6. 해설: 이 소설은 모자라지만 천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거듭하여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가 황수건의 일화를 나열하며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는데, 이는 황수건의 어수룩한 행동들이 웃음을 자아내고 이에 대한 서술자 ‘나’의 애정 어린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 ㉡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쥬라’가 되었다.
- ㉢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정답: ㉣

*선재국어 1권 63쪽, 서울시 SOS 87쪽

해설: 음운 변동 중 음운의 축약과 탈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가--아서→가서’는 동음 탈락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탈락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 ㉠, ㉡, ㉢은 음운의 축약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 옳다[올타], 옳지[올치]: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로 발음하는 것은 자음 축약과 관련이 있다.

㉡ ‘주--어라→쥬라’는 모음 축약이 된다.

㉢ 막혀[마켜], 맞힌[마친]: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면 ‘ㅍ, ㅌ, ㅊ, ㅋ’이 되는 자음 축약과 관련이 있다.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필 뿐 한적했다.
-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정답: ②

*선재국어 1권 73쪽 등, 서울시 S0S 13모의고사 7번 등

해설: 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거나 조사가 붙으면 수사이다. ②에서 쓰인 ‘한둘’은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뜻하는 수사이다. 참고로, ‘한둘’은 명사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 ‘조금 / 어떤 일이나 현상이 적은 수부터 서서히 시작됨.’의 뜻을 나타낸다.
나머지 ①, ③, ④는 모두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한’은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에는 관형사로만 쓰인다.

③ ‘두’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낼 때에는 관형사로만 쓰인다.

④ ‘두세’는 그 수량이 둘이나 셋임을 나타낼 때에는 관형사로만 쓰인다.

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 ③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정답: ②

해설: ‘비나리치다’는 아침하여 가며 남의 환심을 산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비나리치다’는 《표준국어대사전》 올라 있지 않지만, ‘비나리’는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침한다는 뜻이므로 유추하여 뜻풀이가 가능한 문제이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써클(circle)
-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정답: ④

*선재국어 1권 376쪽부터, 서울시 S0S 153쪽부터

해설: 배지, 앙코르, 콘테스트, 난센스는 모두 바르게 쓰였다. 뱃지(×), 앵콜(×), 컨테스트(×), 넌센스(×)로 쓰지 않도록 한다.

오답 풀이: ① 옐로우(×)→옐로(○)

② 알콜(×)→알코올(○), 써클(×)→서클(○)

③ 도너츠(×)→도넛(○)

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보도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 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해명 자료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의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④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신문 보도(2)를 보면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방문여권 소지자(유학생, 주재원)가 단독세대원이면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명 자료(2)에서는 방문여권 소지자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문여권 소지자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는 문제(공공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음)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해명 자료(2)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개략적(概略的)’이란 ‘내용을 대강 추려 줄이는. 또는 그런 것’이란 말이다. 신문 보도(1)에서 간단히 요약된 내용을 신문 보도(2)에서 자세히 풀어 쓰고 있으므로 ①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신문 보도(2)의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이란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증명)이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디글이[디그시], 흠이불[흔니불] ② 똥[똥], 밝히대[발키대]
 ③ 햅대[할따], 늪죽하대[넙쭈카다] ④ 흙만[흑만], 동원령[동원녕]

정답: ①

*선재국어 1권 173쪽부터, 서울시 S0S 모의고사 12회 4번 등

해설: •디글이[디그시]: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별도의 발음이 인정된다.

•흠이불[흔니불]: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받침 다음에 ‘이, 야, 여, 요, 유’가 오는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흔+이불(대표음 실현) → 흔+니불(음의 첨가) → 흔니불(음의 동화)’로 발음이 실현된다.

오답 풀이: ② 똥[똥]([○]): ‘ㄹ’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고 [똥]으로 발음하고 ‘ㄴ’이 ‘ㄹ’

뒤에서 유음화가 되어 최종적으로 [똥른]으로 발음한다.

- ③ 넓죽하다[넙쭈카다](○):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 ‘넙’으로 표기된 것은 [넙]으로 발음한다. 받침 ‘ㄱ’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두 음을 합쳐서 [ㅋ]으로 발음한다.
- ④ 흙만[흥만](○): 받침 ‘ㄹ’이 대표음 ‘ㄱ’으로 실현된 후,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9. 다음 중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보기>

놀리-+-ㄹ

↓ (파생)

손+놀림

↓ (합성)

손놀림

- ① 책꽃이 ② 헛소리 ③ 가리개 ④ 흔들림

정답: ①

해설: [손+(놀리+ㄹ)]: 파생어에 어근이 다시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예를 찾는 문제이다. <보기>는 용언의 어간 ‘놀리-’에 명사 파생 접사 ‘-ㄹ’이 붙은 파생어 ‘놀림’에 다시 어근 ‘손’이 결합하여 합성어 ‘손놀림’이 된 것이다.

- ① [책+(꽃+이)]: 동사 ‘꽃다’의 어간 ‘꽃-’에 명사 파생 접사 ‘-이’가 붙어 ‘꽃이’가 되고, 어근 ‘책’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사 ‘-이’가 붙은 파생어 ‘꽃이’는 ‘꼬챙이’가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② (헛+소리): ‘헛소리’는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파생의 과정만 거친다.

- ③ (가리+개): ‘가리개’는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파생의 과정만 거친다.

- ④ [(흔들+리)+ㄹ]: ‘흔들림’은 어간 ‘흔들-’에 피동 접사 ‘-리-’가 붙은 파생어에 명사 파생 접사 ‘-ㄹ’이 붙은 경우이다.

*참고로 ‘흔들림’의 ‘-ㄹ’은 ‘흔들림’이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사 파생 접사보다는 명사형 어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단어의 구성과 관련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다.

1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仲要)하다.
- ② 대중(對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③ 부동산 중개사(重介士)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④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지지 않도록 숙면을 취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집중력(集中力: 모을 집, 가운데 중, 힘 력)’으로 쓰는 것이 맞는다.

오답 풀이: ① 귀중하고 요긴하다는 뜻의 ‘중요’는 ‘重要(무거울 중, 요긴할 요)’로 쓴다. ‘仲’은 ‘버금 중, 중개할 중’이다.

- ②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대중’은 ‘大衆(큰 대, 무리 중)’으로 쓴다. ‘對’는 ‘상대할 대’이다.
 ③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뜻하는 ‘중개사’는 ‘仲介士’로 쓴다. ‘重’은 ‘무거운 중’이다.

11. 다음 중 <보기>와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보기>

오호, 여기 졸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것이로다.

-구상, <초토의 시 8>

- ① 김주영의 <객주> ② 이범선의 <오발탄> ③ 박경리의 <토지> ④ 황석영의 <장길산>

정답: ②

*서울시 SOS 모의고사 10회 7번

해설: <보기>는 구상의 <초토(焦土)의 시(詩) 8 - 적군 묘지 앞에서>이다. 이 시는 시인의 한국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쓴 연작시(총 15편) 중 한 편으로, 적군 묘지 앞에서 적군 병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분단 현실에 대한 통탄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따라서 <보기>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이다. 이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월남한 한 가족의 비참한 처지를 통해 분단의 비극성을 고발하고, 황폐화된 전후(戰後)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소설인 ② 이범선의 <오발탄>이다.

오답 풀이: ① 김주영의 <객주>: 젊고 의협심 강한 보부상 천봉삼이 우연치 않게 민 씨 일가의 음모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 소설로, 임오군란을 전후로 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다.

③ 박경리의 <토지>: 경남 하동 평사리의 대지주 최 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편 소설로, 구한 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④ 황석영의 <장길산>: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의지를 키워나가는 장길산을 통해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민중들의 모습을 그린 장편 역사 소설로, 조선 효종조 말기부터 숙종조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 마당이 넓다. ↓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정답: ③

*선재국어 1권 110쪽 등

해설: 동사 '먹다'에 사동 접사 '-이-'가 붙은 '먹이다'는 동사이지만, '넓다'는 형용사이고 사동 접사 '-히-'가 붙은 '넓히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용언의 어간에 보조 용언 '-게 하다'가 붙은 통사적 사동문이고, ㉡은 용언의 어간에 사동 접사 '-히-'가 붙은 파생적 사동문이다.

② ㉠과 같은 주동문에서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과 같이 사동문이 되었을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또 ㉡과 같은 주동문에서 주동사가 형용사 또는 자동사이면 ㉡과 같이 사동문이 되었을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④ ㉠의 주동문에서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과 같이 사동문이 되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세 자리 서술어로 바뀐다.

또 ㉡의 주동문에서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이지만, ㉡과 같이 사동문이 되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므로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로 바뀌게 된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③ 고무, 담배,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정답: ①

*선재국어 1권 27쪽, 서울시 SOS 80쪽

해설: 어원에 따른 국어의 갈래를 묻는 문제이다. '하늘, 바람'은 고유어이지만,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는 한자어이다.

오답 풀이: ② 학교(學校), 공장(工場), 도로(道路), 자전거(自轉車), 자동차(自動車)는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다.

③ '고무'는 프랑스어, '담배, 빵'은 포르투갈 어, '가방'은 네덜란드 어, '냄비'는 일본어에서 왔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④ '비어'는 비속하고 천한 어감이 있는 점잖지 못한 말로, 비속어 또는 속어라고도 한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 철수 밥 먹는다.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정답: ③

해설: ‘오늘 내가 보다’라는 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여 ‘영화’를 수식하는 관형절로 쓰였다.

- 오답 풀이: ① ‘철수’, ‘밥’은 문장에서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자립할 수 있는 단위인 단어이자 띄어쓰기의 단위인 어절이다. 그러나 문장에서 ‘철수’는 주어로 쓰였지만, ‘밥’은 부사어가 아닌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② 절이란 주술 관계가 있으며, 더 큰 문장 속에 들어가서 전체 잔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문법 단위를 말한다. ‘그 사람이’의 경우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절로 볼 수 없다. 또한 ‘그런 심한 말을’의 경우는 밑줄 친 부분이 후행하는 명사 ‘말’을 꾸미는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전체 어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④ ‘밝히다’는 ‘~을 밝히다’의 형태로 쓰이지만, ‘밝혀지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가 필요없다. 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이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갑시다.

- ① 登高自卑 ② 角者無齒 ③ 騎虎之勢 ④ 唇亡齒寒

정답: ③

해설: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다’는 말과 뜻이 통하는 한자 성어는 ‘騎虎之勢(말 탈 기, 범 호, ~의 지, 형세)’이다. ‘騎虎之勢(기호지세)’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登高自卑(오를 등, 높을 고, 스스로 자, 낮을 비):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을 이르는 말
 ② 角者無齒(뿔 각, 사람 자, 없을 무, 이 치):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④ 唇亡齒寒(입술 순, 망할 망, 이 치, 찰 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 ㉠ <삼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인문평론》, 《문장》 등 우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서울시 S0S 모의고사 5회 9번, 현대문학사 특강 143쪽 3번

- 해설: ㉠ 1930년대: 염상섭의 <삼대>는 1931년에,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1938년에 발표되었다. 이광수의 <흙>은 1932~1933년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
 ㉢ 1920년대: 《동아일보》(1920), 《조선일보》(1920년) 등의 민간 신문이 창간되었고, <창조>(1919), <백조>(1922), <폐허>(1920) 등의 동인지가 다수 발행되었다.
 ㉣ 1940년대: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40년에, 《인문평론》과 《문장》은 1941년에 폐간되었다.
 ㉤ 1900년대: 이인직의 <혈의 누>는 1906년에, 이해조의 <자유종>은 1910년에 발표된 신소설이다.
 따라서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면 ③ ㉢-㉠-㉣-㉢-㉤이다.

17.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① 【…에】 ①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②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③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④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②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③ 【…에/에게 …을】
 ①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②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지 깨우쳐 주다.

- ① ①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② ①③: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③ ②: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④ ③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정답: ②

해설: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의 의미로 바르게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1)㉔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의 예로 적절하다.

③ (3)㉔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지 깨우쳐 주다.'의 예로 적절하다.

④ (2)'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의 예로 적절하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종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빙'이 있다.

정답: ④

*선재국어 1권 486쪽, 서울시 SOS 7회 모의고사 15번 등

해설: 연서(連書) 규정은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서·쓰면 입시·울가·비야 븐소리 드외·니·라.'와 같이 빙, 풍, 뽕, 땀을 설명한 것으로, 순음 아래에 'ㅇ'을 이어서 순경음을 만드는 글자 운용법이다. 현실 음운으로서 우리말에 표기된 것은 '빙'뿐이다.

오답 풀이: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본떴다. 혀가 윗잇몸을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은 혓소리 'ㄴ'이다.

② 훈민정음의 초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5개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ㅎ'의 9개의 가획자를 만들고 'ㅇ, ㄹ, ㅅ'의 3개의 이체자를 더해 이루어졌다.

③ 훈민정음 문자의 수는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합한 28자이다.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고 하였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대화를 하^ㅁ하면 할수록 타협점은 커^ㄴ녕 점점 갈등만 커^ㄴ지게 되^ㄴ었다.

②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봤^ㄴ더니 바^람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ㄴ았다.

③ 그 만^큼 샀^{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있을 만^큼만 상^자에 담^으렴.

④ 나^는 나^대로 갈^데가 있^{으니}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정답: ④

해설: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나대로'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맞고, 이 문장에서 '데'는 곳, 장소를 뜻하므로 '갈 데가/ 가고 싶은 데로'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는다.

오답 풀이: ① 타협점은 커^ㄴ녕(×) → 타협점은 커^ㄴ녕(○): '느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할수록(○): '-르수록'은 연결 어미이므로 '할수록'은 바르게 쓰였다.

② 바^람 소^리 밖^에(×) → 바^람 소^리밖^에(○):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창문 밖에(○): ‘밖에’는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서 쪽’ 등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따라서 앞말에 띄어 쓴다.

③ •그 만큼(×) → 그만큼(○): ‘그만큼’은 그만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또는 명사로, 한 단어이다.

•있을만큼만(×) → 있을 만큼만(○):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그런 정도로’, ‘실컷’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溫古知新 ② 麥秀之嘆 ③ 識者憂患 ④ 左考右昞

정답: ②

해설: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은 ‘麥秀之嘆(보리 맥, 빼어날 수, ~의 지, 탄식할 탄)’으로 쓰는 것이 맞는다. ‘麥秀之歎’으로 쓰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① 溫古知新(×) → 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뜻하는 말은 ‘溫故知新(온고지신: 따뜻할 온, 옛 고, 알 지, 새로운 신)’으로 쓴다.

•古: 옛 고/오래 고

③ 識者憂患(×) → 識字憂患(○):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된다는 뜻의 한자 성어는 ‘識字憂患(식자우환: 알 식,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으로 쓴다.

•者: 사람 자

④ 左考右昞(×) → 左顧右盼(○):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은 ‘左顧右盼(좌고우면: 왼 좌, 돌아볼 고, 오른 우, 결눈질할 면)’으로 쓴다.

•考: 살필 고/생각할 고